

退溪哲學 연구의 반성과 과제

金 基 鉉*

《目 次》

- I. 반 성
- II. 退溪哲學의 중심과제
- III. 이 시대의 요구

I. 반 성

韓國儒學에 대한 철학적 연구의 역사는 退溪哲學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확산되어 온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방 이후 학계를 지배해온 서양철학이 동양철학의 ‘철학성’을 무시하던 이 땅의 그릇된 풍토속에서 70년대 초 선각의 몇몇 학자들이 退溪의 性理學에 기울인 관심과 연구노력은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철학적 자존심을 서서히 일깨우면서, 이후 退溪는 물론 그 밖의 많은 유학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핵반응과도 같이 退溪哲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그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그리하여 그 기간이 아직 일천하고 또 연구의 수준도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여년간 수백편의 退溪哲學 논문이 쓰여지고 기타 많은 유학자들에 대하여 왕성한 연구 발표들이 행해짐으로써 그 동안 역사속에 묻혀있던 韓國儒學의 철학적 정체가 그만큼 밝혀졌다는 사실은 한번쯤 자부되어도 자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곰곰히 생각해보면 退溪哲學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어떤 편향성과 함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한다. 전공자들이 지금까지 행해온 退溪哲學의 연구작업은 서양철학, 더 나아가서 현대학문의 지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정작 退溪哲學의 핵심을 다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주지하는 것처럼 서양철학의 명료한 개념과 이론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지식체계의 수립을 목표로 삼는다. 그 탐구대상은 물론 다양하다. 그것은

* 全北大學校 教授.

1) 「退溪全書」一. (成大 大東文化研究院) 372쪽 〈答李叔獻 別紙〉.

존재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으며, 지식, 언어 등을 포함한다. 서양철학의 이와 같은 안목에 退溪哲學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즉각 退溪의 理氣論, 心性論 등을 연상한다. 그것은 세계와 사물, 인간존재에 대한 그의 “窮理”정신, 즉 철학적 관심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거기에서 보여준 바 주요개념들에 대한 엄밀한 성찰과 이론전개는 그의 뛰어난 철학정신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안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우리의 학계가 그동안 그의 理氣論과 心性論에 관심을 집중해 온 것은 그러므로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저 주제들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철학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을 곧 退溪哲學의 간판으로 세울 수 있을까?

退溪 자신은 아마도 이 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哲學을 空理空談으로 만들어버리는 후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말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자. “사물을 탐구하고 그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是非와 善惡을 밝혀 그것을 取捨하기 위한 것을 뿐이다”¹⁾ 한편 그의 ‘索隱行怪’의 탄식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요즘은 학자들 중에는 진리를 일상의 알맞은 곳에서 찾을 줄 모르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복잡한 곳에 먼저 발을 들여놓아 끝내 진리를 점차로 알 기약은 없이 索隱行怪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매우 한탄스럽다”²⁾ 退溪의 이러한 말들은 그의 철학의 핵심이 理氣心性論 너머에 있음을 암시한다. 退溪學의 독창성이 ‘道問學’의 朱子學과는 달리 ‘尊德性’에 있다는 서양학자들의 주장³⁾은 이 점을 잘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의 理氣心性的 ‘道問學’은 도덕수행의 ‘尊德性’을 전제로 분석,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退溪哲學의 진의를 자칫 왜곡하기가 쉬울 것이다.

退溪의 理氣心性論 자체에 대한 기왕의 연구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동안 退溪哲學을 理·氣·心·性·四·七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호를 가지고 형식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혹자는 그것들이 본래 고도로 추상화된 문자부호로서 退溪가 그것들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졌음을 들어, 그것들의 체계적 이론 정리가 우리 연구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退溪가 끊임없이 지향했던 理氣心性的 ‘세계체험’을 도외시한 채 그 추상개념들만을 연역하고 추론하는 ‘논리인식’의 태도는 그의 학문정신에서 어긋난다. 그의 철학에 후자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학문이란 언어문자위에서 즐기는 “知的 skating”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

2) 앞의 책 260쪽 〈答李平叔〉.

3) 송휘철 〈구미제국에서의 퇴계학 연구의 동향과 그 성과〉, 경북대 퇴계학 연구소 「한국의 철학」 제 19호, 39쪽 참조.

는 문자속에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의미에 침잠함으로써 그것의 평면적 이해를 뛰어넘어 삶의 생생한 현장에서 그 입체적 파악을 시종 진지하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언어문자를 의미론적으로 대하지 않고 온몸으로 체감하여 하였다. 그가 학문에서 ‘몸소 행함(體行)’, ‘몸소 인식함(體認)’, 또는 ‘몸소 성찰함(體察)’ 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학문정신의 발로에 다름 아니었다. 栗谷이 退溪의 〈心學圖說〉상 논리적인 약점을 따지자 그가 栗谷에게 행한 답변은 그의 학문정신의 일단을 잘 표명해준다. “先儒들의 논설의 옳지 않은 점만을 찾아 그것을 펴마하고 배척하려 할 뿐 그것의 명백·정당한 도리를 질박해나가려는 의사가 적다.”⁴⁾ 그러므로 우리는 理氣心性論도 그의 ‘온몸의 체감정신’을 동원하여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와 인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 理氣心性 등에 대한 사전적 개념풀이와 논리분석만 가지고는 退溪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알기 어렵다. 그 개념들을 분해·조립함으로써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려 함은 마치 지도 위에서 山河를 보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退溪가 그러했던 것처럼 ‘上達’의 추상개념들을 ‘下學’의 일상세계으로 환원하여 退溪哲學을 보다 실감있게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연히 여기에는 어떤 난관과 모험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새로운 언어구성의 어려움속에서 그의 철학을 조심스럽게 형상화해나가는, 참으로 ‘철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어렵다 하여 회피한다면 退溪哲學은 여전히 신비하고 애매모호한 문자들 속에 갇혀 결국 역사속의 한 유물로 사장되고 말 것이다. 이 시대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退溪哲學은 그러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II. 退溪哲學의 중심과제

그러면 退溪哲學은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까? 그것은 그의 철학적 사유와 나아가 학문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였던 목표를 검토함으로써 대답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退溪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덕적 자아의 완성에 두고 있었다. 그의 이른바 ‘聖學’이 이러한 뜻을 함축한다. 말하자면, 그의 철학은 聖人을 실천적으로 지향하는 도덕적 인간학이었던 것이다. 그의 저술들 행간에 배여있는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爲己之學’은 그의 철학정신을 요약해 준다. 이는 사람들에게 학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그는 명예와 지위 등을 위한 그릇된 학문과, 학문을 위한 학문의 고답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4) 「退溪全書」一, 380쪽 〈答李叔獻〉.

인간중심의 학문을 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는 이를 통하여 그의 도덕적 자아를 완성·실현하는데 진력하였다. 그가 조선조 유학사상사 속에서 그 많은 이론가들에도 불구하고 제일의 학자로 칭송되어 온 것도 이에 근거한다. 그의 理氣心性論도 여기에 최후의 답을 내렸다. 그는 그러한 추상개념들을 검토하는 순간에도 인간의 완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의 “尊理賤氣” 의식이 이를 정히 말해준다. 그의 이론의 무게와 깊이도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退溪의 도덕적 인간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의 연구과제를 부여받는다. 먼저 그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여기게 된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의 도덕형이상학에 관한 물음의 성질을 갖는다. 자연관과 인간존재론이 이 주제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그의 理氣論과 心性論이 이에서 그 논의의 자리를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식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논의의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理氣心性論 위주의 분석은 형해화된 자연과 인간만을 그려냄으로써, 天地人 三才의 하나로서 자신을 이 우주의 한 중심에 확고히 세우려 했던 退溪의 철학사상을 해명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는 이기심성론을 그의 철학에서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理氣心性論에 관한 인간학적 논의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온 理氣心性論的 사고를 가급적 우리의 머리에서 지우고 그 개념들을 그 의미근원으로서의 자연과 사물, 인간, 사회 등에 환원하는 작업에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理氣心性論에 국한시키지 말고 退溪의 사상 전반으로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컨대, 理氣의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존재의 형이상학을 묘사한 그의 몇몇 시들은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四書五經 또한 그의 인간학을 이해하는데 결코 제외되어서는 안될 중요성을 갖는다. 그에게 있어서 학문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귀착지였을 四書五經의 내용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退溪와 程朱 등의 非理氣論的 저술들과, 그가 역시 중시해마지 않았던 「小學」, 「心經」, 「近思錄」, 그리고 四書五經 등의 깊이있는 이해는 그의 철학의 재구성작업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退溪의 도덕관 또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인간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연구는 退溪 이래 수없이 행해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역시 학자들의 추상일변도의 사고활동에 원인이 있다. 철학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학문으로서 본래 추상성을 떨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경험의 세계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또 체

힘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삶)’은 박제품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마치 사체의 해부를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밝히려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을 현란한 지식의 운무 속에서 어리둥절하게 만들 뿐이다. 유학사상사 속에서 살필 때 조선후기의 人物性 同異論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한 논쟁은 인간의 본질을 밝혀주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다. 退溪의 철학 역시 객관적으로 살피면 그러한 일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자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몸의 체감 정신’으로써 ‘上達’의 언어와 ‘下學’의 인간을 융통, 그의 본질을 실천적으로 밝혀내려 하였지만, 그 ‘융통’의 오묘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후학들은 양자 사이를 헤매는 당혹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그의 저와 같은 학문정신에도 불구하고 性理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退溪가 주목했던 바 인간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경험적 성찰은 그의 仁義禮智觀을 폭넓게 조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仁義禮智를 四端의 선형적 근거로서 본성의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退溪나 기타 다른 선비들의 풍요로운 도덕적 삶을 빈곤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약점을 갖는다. 退溪가 역사적으로 얻는 “義精仁熟”의 평가만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惻隱之心과 羞惡之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그가 평생토록 이루어낸 고도의 도덕적 삶에 대한 칭송이었다. 이는 仁義禮智가 본성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삶을 인도하는 도덕이념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삶의 곳곳에서 작용하였을 평생의 이념으로서의 그것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철학을 해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점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의 철학자체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仁義禮智의 도덕은 그의 삶의 철학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이다. 그의 爲己之學은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仁義禮智는 자타분별의 의식 속에서 산출된 개인적 도덕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 타자를 내포하는 사회적 관념이다. 이는 그것이 退溪의 사회사상(이상)을 깊이 담고 있음을 뜻한다. 그가 “爲我之學”을 한다는 비난을 들을만큼 끊임없이 벼슬길을 사양한 행적은 일견 그의 사회사상을 말하기 어렵게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孟子의 이른바 “可以仕則仕 可以止則止”의 사세판단의 결과일 뿐 그의 깊은 사회의식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 그가 陶山에 은거한 후에도 계속 나랏일을 걱정했던 것이나, 또는 〈陶山十二曲〉을 지어 아이들에게 노래부르게 함으로써 풍속의 순화를 도모했던 사실 등이 이점을 입증해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退溪의 도덕철학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살피 그의 사회사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왕왕 행해져 왔던 바 조선 유교의 사회적 공과를 재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退溪의 도덕수행론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일본 어떤 학자의 표현대로 그가 “걸어가면서 죽은 사람”일 정도로 조선유학사상사내 제일의 도덕수행자라면 실천수행론이야말로 그의 철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요인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수백년전의 그를 가까이 느끼며 흠모하는 것도 그의 정치한 이론보다는 경건한 수행인·구도자의 모습을 그의 언론과 행실에서 간단없이 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되어감에 주목하고 그 스스로 자기완성에 진력했던 退溪의 수행론을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사람이 ‘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방법과 과정이 필요한지, 수행의 궁극에는 어떠한 사람이 초상되는지 하는 등의 주제에 관한 그의 체험적 사고를 알아보는 것이다. 유교의 수양론 모두를 포괄하는 이러한 주제는 잘 정리만 된다면 인간교육이 부재한 이 시대의 교육현장에서 하나의 훌륭한 교범으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는 우리들의 엄청난 사색과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 사고구조와 어법을 현대인들의 생각과 언어에 맞게 철저히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때 우리들의 냉정한 머리만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心身의 체험과 몸소의 깨달음이 없이는 가능치 않을 것이다. 退溪哲學 연구의 제일 커다란 난관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처럼 보인다.

退溪哲學에 대한 연구는 그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의식적으로 다룬 주제들에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의 언론의 행간과 행적의 이면에 파고 들어가서 그가 비록 학문의 주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역시 그의 사상의 기층과 맥락을 이루는 것들을 짚어내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거론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그의 사물관, 생사관, 역사관 등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볼 만한 주제는 적지 않다. 다만 이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우리의 작업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교경전의 내용과 退溪사상을 중황으로 숙달하여 그것들을 우리의 철학적 안목에 요연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해당주제에 대한 논의의 설득력은 이러한 노력과 그 성과 정도에 달려 있음을 물론이다. 연구자들의 평생과제가 될 수도 있는 이 작업은 어쩌면 그들에게 미구에 닥칠지도 모르는 고전적 연구방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 줄 좋은 공부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 시대의 요구

지금까지 우리는 退溪哲學 연구의 방법론적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가꿈쫘은 던져보았을 자명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개운치 않은 한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무엇때문에 退溪哲學을 공부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손쉬운 답변은 아마도 현대학문에 입각하여 退溪의 철학을 밝히고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래도록 역사속에 묻혀있던 그의 철학을 새롭게 조명하여 그 심오함을,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사상적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그 흐름이 폭넓고 또 두터웠던 우리의 유학사상사를, 그 중에서도 우뚝한 退溪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적 자존을 세우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연구의 역사가 아직 짧은 마당에서 그것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문도 있을 수 있다. 退溪哲學의 史的 정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떠한 의의를 주는 것일까? 우리의 현재를 떠받쳐주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가 退溪哲學을 그 한 토대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이 退溪의 정신에 이어져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退溪哲學을 알고 이 사회를 건설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서양문화에 힘입은 바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退溪哲學을 공부하는 것은 그 어떤 현실적 의의도 갖지 못한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겨우 족보를 열어 선조를 확인하는 것, 또는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속의 골동품을 감상하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주위에서 간혹 돌맹이를 던지듯 건네오는 “哲學史家”, “註譯學者”라는 비아냥은 이러한 부정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생각은 물론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이 분야에서 행해져 온 기왕의 학문방법을 반성케 해주는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릇된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얼핏 생각하면 수백년전의 退溪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인들의 정신적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은 터무니 없어 보인다. 그러나 각 문화마다 그 고유한 인간상을 갖고 있는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

간을 내용적으로 규정해주는 것이 바로 전통이고 보면, 한국인으로서 우리 고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는 우리의 문화전통이 이미 스며 작용하고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전통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어온 민족정신의 보전형식으로서, 이 민족의 큰 스승으로 과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私淑되어온 退溪의 철학과 정신은 그 혼동된 일부를 이룬다. 그러므로 퇴계의 철학과 정신은—우리는 이 때 그의 理氣論이나 心性論을 떠올려서는 안된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의 위대한 철학은 일상의 삶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이미 지나가버린 시대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으로 녹아 흘러 우리의 현재를 이루어 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양의 학자들이 우리의 사회·경제 발전의 한가지 원인을 유교정신에서 구하고 있는 것도 이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삶의 혼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멀리는 日帝의 한국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이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표면에서 발전되지 못하였고, 가까이는 해방 이후 미국문화의 선망속에서 우리 자신이 전통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것이 이제는 아예 사람들에게 의해 인식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역사적 불행을 배경으로 갖는다. 이 사회의 가치혼란과 정신적 빈곤증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에 다른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退溪哲學의 연구와 정리의의를 발견한다. 그것은, 개인과 역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정당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그 동안 도외시되고 부정되어 온 우리의 역사적 자아를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긍정케함으로써 역시 역사적일 수 밖에 없는 그들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의 목표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가 단지 역사적 자아의 확인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가 退溪哲學을 공부하는 것은, 退溪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타의 인간성숙과 사회의 도덕화·인간화에 그 최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철학의 임무와 능력에 대해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退溪의 철학정신은 그들에게 철학이 복권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 시대,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退溪의 哲學 정신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한 비판·충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우리자신의 내부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물에 대한 인식태도,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하여 律身의 도리, 자타간의 윤리, 사회질서, 정치철학 나아가 국제관계 등 인간생활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복고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退溪의 철학은 그이 시대와 삶의 제조건을 토양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그것과 여러모로 일정한 거리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

시에 그가 시공적 제약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의 철학정신에 입각하여 현대인들의 비인간화 경향과 현대문명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삶과 사회, 미래문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철학적 시대적 한계를 비판·보충하는 한편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그의 창조적 식견을 발전시키는 가운데에서 이 시대 우리의 인간학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을 계승하는 한국철학의 독자적인 공간이 여기에서 비로소 열릴 수 있다.